

농산자원 활용 제품 '한 꾸러미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비빔면·복덩이 떡·초콩나무 초코파이 담긴 '전주 관광상품 꾸러미 키트' 출시

전주 비빔면과 전주 복덩이떡, 전주 초콩나무 등 전주지역 농산자원을 소재로 한 제품이 꾸러미로 제작됐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전주 인기명물을 다 모아놓은 '전주 관광상품 꾸러미 키트'를 생산기업들과 함께 힘을 모아 소평 라이브방송과 온라인 토크를 통해 출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꾸러미 키트에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지역 기업과 함께 밀·쌀·복숭아·콩나물콩 등 전주지역 농산자원을 주원료로 기능성과 기호성을 높여 개발한 △(주)소부당의 '복덩이 떡' △(주)천년누리의 '비빔면' △(주)디자인농부의 '초콩나무' 등이 담겨있다.

전주 복덩이 떡과 전주 비빔면, 전주 초코파이, 전주 초콩나무로 구성된 2만 원 상당의 '전주 관광상품 꾸러미 키트'는 네이버와 쿠팡 라이브 진행으로 총 4회 방송된다. 또, 네이버와 쿠팡의 오픈마켓과 할인종독 등의 쇼핑앱과 해당기업의 홈페이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전주 인기명물을 다 모아놓은 '전주 관광상품 꾸러미 키트'를 출시했다.

연구원은 또 콩 특유의 비린내 원인인 리폭시게나아제 활성도를 저하하고 유용성분 활성을 증대시킨 열풍 로스팅 공정을 적용한 '전주

콩나물콩차 드립백과 티백형 2종'도 출시한다.

전주 콩나물콩차는 열풍 로스팅 전처리기를 통해 콩나물 콩의 고소한 풍미를 포집해 드립백 형태로 만든 것으로, 기존 차류 시장의 티백형태와 차별화된 맛과 풍미를 자랑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콩나물 콩차 2종의 제품은 기존에 출시된 '초콩나무'와 함께 세트상품과 단일 상품으로 출시되며, 온라인과 한옥마을 내 오프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오병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 여행을 편히 못가고 일상생활에 지쳐가는 환경에 전주 꾸러미 키트는 전주 관광명소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을, 여행에서 느꼈던 즐거움을 다시 선사하고자 출시한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전주 관광상품을 판매·홍보하고 브랜드를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매출향상과 전주 오면 찾아오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6억원 투입 단지 시설·근로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

전주시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도 개선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6억 원을 들여 20세대 이상 노후공동주택과 소규모(4~19세대)인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

주택은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편의시설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근로자 쉼터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쉼터 설치 사업에 단지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 설치 완료시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말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심사 위원회'를 열어 사업 대상을 최종 선

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연말까지 옥상방수, 외벽도색, 도로보수 등 아파트와 부대시설의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후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건물 노후화로 도시의 이미지를 해치던 낡은 공동주택의 외벽을 도색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공동주택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활력을 주고 전주시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백년대계, 전주한옥마을 학교들' 특별전

조선시대 국립 교육기관인 향교와 선비를 양성하던 교육기관인 '양사재', 근대 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주한옥마을의 학교들을 둘러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한옥마을역사관은 다음 달 6일까지 역사관 기획전실에서 한옥마을 내 학교의 역사를 소개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 전주한옥마을 학교들' 특별전을 진행한다

향교와 양사재, 근대 교육의 발원지인 전주한옥마을의 학교 교육의 발원지를 재조명하고, 당시 학교 교육의 흔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조선 시대 전주 교육의 뿌리 △일제강점기 근대학교의 출현 △해방 이후 학교의 발전 △1960년대 이후 학교의 모습 △전주한옥마을 학교의 연혁 등 5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

제별 영상과 사진, 패널, 소장품 등으로 채워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전통 교육기관인 향교와 양사재, 일제강점기 근대 교육이 도입되면서 건립된 학교들, 해방 이후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 현장,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취학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의 성장과 학교생활 모습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전주향교 관련 고서적 △근현대 교과서 △졸업앨범 △교지 △4가 지경사(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에 발행된 교과서와 사진 등 24점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전주한옥마을역사관은 이번 특별전에서 1980년대 전주중남초등학교의 교지를 본뜬 체험 코너를 마련, 전시 관람객들이 소감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특별전시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 전주한옥마을의 학교 교육발전의 모습도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년대계(百年大計), 전주한옥마을 학교들' 특별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평생학습지도' 제작·배부

전주시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위치와 정보 등을 담은 '전주시평생학습지도'를 제작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지도에는 △도서관 △박물관·미

술관 △청소년시설 △문화예술관련시설 △사회복지관 등 전주지역 곳곳에 위치한 104개 평생학습 관련기관들의 정보가 담겨 있다.

'전주시평생학습지도'는 완산·덕진구청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되며,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e.jeonju.go.kr)와 종이지도의 QR코드 스캔 등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보장하도록 힘쓸 것"이라며 "전주시 전체가 시민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창조해 나갈 것"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열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등 현안 논의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응해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창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난 14일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전주시의회에서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참석 의장들은 총회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의회 의회 공동 현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추진실적과 예산결산, 올해 세입세출 예산 보고도 이뤄졌다.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각 시·군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14개 시·군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전주시의회에서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간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함께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